



2017년 기준 경상북도 및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 보고

2018.12.



2017년 기준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 요약

- ◇ 사회적 관심,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군민들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지역균형개발, 복지시책추진 등 행정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I 조사개요

- 조사 일시: 2017.9.4. ~ 9.18.(15일간)
- 조사 대상: 40개 표본조사구내의 800개 표본가구
(가구주 및 만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 내용: 가구와 가족, 건강, 교육 등 48개 문항
- 조사 방법: 조사원을 통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II 주요 조사결과

[가구와 가족]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한다」 60.1%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
- (가족관계 유형별 만족도) 「자녀와의 관계」 77.1%로 가장 높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관계」 52.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부모 생활비 제공) 「부모 스스로」 53.3%, 「모든 자녀」 16.3% 순

[건강]

- (의료서비스 만족도) 「한의원」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약국」은 16%로 가장 낮게 나타남

[교육]

-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대학>초등>중·고등학교의 순으로 높음
-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초등 33만원, 중학생 36만원, 고등학생 49만원

[환경]

- (환경체감도) 대기의 질, 강·하천·호수의 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전 분야에 걸쳐 55%이상 긍정적인 평가

[안전]

-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식량안보」, 「교통이용」, 「건축시설」의 순으로 높으며, 불안하다 비율은 「국가안보」, 「자연재해」, 「신종전염병」 순으로 높음
- ☐ **(동네 주위환경 느낀 점)**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25.7%로 가장 높고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다」 3.4%로 가장 낮음
- ☐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 동네 사람들에게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73.4%로 가장 높음

[여가와 문화]

- ☐ **(여가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불만족」 28.7%로 불만족 이유는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24.1%로 가장 높음
- ☐ **(문화예술행사 및 시설 만족)** 「문화예술행사」 만족도는 51.2%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시설」관련 만족도는 48%로 전년 대비 증가

[사회통합]

- ☐ **(자원봉사 참여율)** 국가 및 지역행사 봉사가 35.2%로 가장 높았으며 참여시간은 재해지역 돕기 및 시설복구가 4.33시간으로 가장 높았음.
- ☐ **(기부 활동 후원율)** 모금단체(기관)을 통한 후원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참여횟수 또한 3.06회로 모금단체(기관)을 통한 후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동네 67%, 시군57.4%, 도 50.5%의 순
- ☐ **(도정 정책만족도)** 만족 29.9%, 보통57.6%, 불만족 12.5%순
- ☐ **(행정서비스 만족도)** 만족 29.7%, 보통57.8%, 불만족 12.5%순

III 향후 계획

- ☐ 결과 공표 : 2018. 12월 중(군 홈페이지 공개)

2017년 기준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 요약(비교)














I. 가구와 가족

■ (가족관계 만족도)	<2016>		<2017>
▶ 자녀와 관계	81.2%	↘	77.1%
▶ 배우자와 관계	81.4%	↘	72%
▶ 전반적 가족관계	62.6%	↘	60.1%
■ (부모님 생존 여부 및 동거여부)			<2017>
▶ 부모님이 한분이라도 살아계심			50.9%
▶ 같이 살고 있지 않음			91.6%
■ (부모님 생활비 주 제공자)	<2016>		<2017>
▶ 부모님 스스로 해결	54.7%	↘	53.3%
▶ 모든 자녀	17.4%	↘	16.3%
▶ 아들 또는 며느리	12.5%	↘	11.9%
■ (낮 시간 보육방법)	<1위>	<2위>	<3위>
▶ 낮 시간 보육방법	어린이집	본인이나 배우자	유치원

II. 건강

■ (의료기관 주 이용시설)	<1위>	<2위>	<3위>
▶ 이용 의료기관 유형	병·의원	종합병원	치과 병·의원
■ (의료시설 만족도)	<만족>		<불만족>
▶ 종합병원	52.3%	vs	14.8%
▶ 병/의원	46.7%	vs	15.0%
▶ 치과 병/의원	53.6%	vs	13.2%
▶ 보건소	43.4%	vs	3.3%
▶ 한의원	54.0%	vs	14.9%
▶ 약국	16.0%	vs	16.0%
■ (의료시설 불만족 이유)			<2017>
▶ 치료 결과가 미흡하다			41.2%
▶ 의료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다			35.6%
▶ 의료 기관이 너무 멀다			13.8%
■ (의료기관 방문 시 주 이용 교통수단)			<2017>
▶ 승용차			58.6%
▶ 시내버스			17.0%
▶ 도보			11.5%
■ (의료기관 방문 소요시간)			<2017>
▶ 10분 이하			33.3%
▶ 30분 초과			26.3%
▶ 평균			37.96분

III. 교육

■ (월평균 사교육비)	<2016>		<2017>
▶ 미취학자녀(만원)	14.0%		21.25%
▶ 초등학생(만원)	35.5%		33.72%
▶ 중학생(만원)	39.1%		36.42%
▶ 고등학생(만원)	37.0%		49.12%
▶ 대학생 및 대학원(만원)			40.12%
■ (월평균 공교육비)			<2017>
▶ 고등학생(만원)			10.30%
▶ 대학생 및 대학원(만원)			65.28%
■ (초등학교 학교생활 만족도)	<2016>		<2017>
▶ 교육내용·수준	55.5%		40.8%
▶ 학교시설 및 설비	52.4%		46.3%
▶ 전반적인 학교생활	60.0%		46.1%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 만족도)	<2016>		<2017>
▶ 교육내용·수준	42.3%		38.5%
▶ 학교시설 및 설비	38.0%		43.3%
▶ 전반적인 학교생활	53.5%		44.4%
■ (대학교 학교생활 만족도)	<2016>		<2017>
▶ 교육내용·수준	59.7%		52.7%
▶ 학교시설 및 설비	61.7%		53.8%
▶ 전반적인 학교생활	61.3%		57.8%

IV. 노동

■ (근로여건 만족도)			<2017>
▶ 하는 일			59.1%
▶ 임금			49.2%
▶ 고용안정성			55.9%
▶ 근로시간			52.3%
▶ 근로환경			54.5%
■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2016>		<2017>
	43.9%		51.7%

V. 소득과 소비

■ (현재 소득 여부 및 만족도)	<예>		<아니오>
▶ 소득여부	86.1%	vs	13.9%
	<만족>		<불만족>
▶ 만족도	25.9%	vs	24.0%

■ (소비생활 만족도)	<만족> 24.3%	vs	<불만족> 24.1%
■ (가구 월평균 소득)			<2017>
▶ 100만원 미만			41.8%
▶ 100~200만원 미만			18.6%
▶ 200~300만원 미만			13.9%
▶ 300~400만원 미만			8.1%
▶ 400~500만원 미만			5.0%
▶ 500만원 이상			12.6%
■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3.2%	vs	<외벌이 가구> 46.8%

VI. 주거와 교통

■ (현재 거주 주택 만족도)	<만족> 58.5%		<불만족> 13.6%
■ (통근·통학 여부)	<예>		<아니오>
▶ 통근·통학 여부	65.9%		34.1%
▶ 이용 교통수단	<1위> 승용차	<2위> 도보	<3위> 시내버스
■ (거주 지역 대중교통 만족도)	<1위> 시내버스	<2위> 시외·고속버스	<3위> 택시

VII. 환경

■ (환경체감도)	<2016>		<2017>
▶ 대기의 질	77.5%	↘	73.4%
▶ 강, 하천, 호수의 질	75.3%	↘	67.5%
▶ 토양(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	71.2%	↘	64.5%
▶ 소음, 진동	67.6%	↘	58.4%
▶ 녹지 환경(공원, 가로수 등)	68.2%	↘	64.5%

VIII. 안전

■ (전반적인 사회 안전)	<2016>		<2017>
▶ 안전	27.6%	↘	19.1%
▶ 불안	32.1%	↘	27.9%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안전하다 비율	<2016>		<2017>
▶ 국가안보(전쟁 가능성, 북핵문제 등)	24.3%	↘	11.7%
▶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22.8%	↘	18.0%
▶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25.5%	↗	28.4%

▶ 교통이용	29.1%		32.9%
▶ 화재(산불 포함)	33.7%		28.3%
▶ 식량안보(곡물가 폭등, 식량부족 등)	50.8%		39.2%
▶ 정보보안(컴퓨터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19.4%		18.1%
▶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조류독감 SARS)	15.7%		16.4%
▶ 범죄위험	20.0%		19.7%
■ (동네 주위환경 느낀 점)	<2016>		<2017>
▶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22.9%		25.7%
▶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19.3%		21.4%
▶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다	10.5%		13.9%
▶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이 많다	6.0%		3.4%
▶ 기초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정차 등)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	13.9%		22.4%
▶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8.1%		6.4%
■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	<2016>		<2017>
▶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70.4%		52.9%
▶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58.9%		42.7%
▶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62.6%		47.7%
▶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3.4%		36.2%
▶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	67.7%		68.8%
▶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73.32%		73.4%
▶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46.2%		38.4%

IX. 여가와 문화

■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여부)	<2016>		<2017>
▶ 경험한 적 있다	39.8%		41.5%
■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1위> 영화	<2위> 스포츠	<3위> 박물관
■ (문화예술행사 참여 만족도)	<2016>		<2017>
▶ 문화예술행사	73.6%		51.2%
▶ 문화예술행사 시설	49.4%		48.0%
■ (여가생활)	<2016>		<2017>
▶ 여가생활 만족도	34.2%		23.8%
▶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1위> 체력·건강문제	<2위> 경제적 부담	<3위> 시간부족
■ (생활시간 압박)	<2016>		<2017>
▶ 평일	62.2%		57.7%
▶ 주말	54.7%		45.5%

X. 사회통합

■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 활동 여부 및 시간)		<있다>	<없다>
▶ 활동 여부		16.8%	vs 83.2%
	<1위>	<2위>	<3위>
▶ 활동 횟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국가 및 지역행사
	<1위>	<2위>	<3위>
▶ 활동 시간	재해지역 주민 돕기 및 시설 복구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국가 및 지역행사
■ (지난 1년 동안 기부 여부 및 횟수)		<있다>	<없다>
▶ (지난 1년 동안 기부 여부)		15.3%	vs 84.7%
	<1위>	<2위>	<3위>
▶ (기부 횟수)	모금단체	직장을 통한 후원	종교 단체를 통한 후원
■ (주관적 귀속계층)			<2017>
▶ 상상			1.2%
▶ 상하			2.3%
▶ 중상			28.9%
▶ 중하			34.4%
▶ 하상			22.8%
▶ 하하			10.4%
■ (경상북도 총 거주기간 및 이주 희망 지역)			
▶ 경북 총 거주기간			<2017>
● 5년 미만			14.9%
● 10년 미만			5.0%
● 20년 미만			14.3%
● 30년 미만			13.6%
● 30년 이상			52.1%
● 평균			34.81년
▶ 향후 10년 이후 경북 거주 희망 의사	<그렇다>	<그렇지 않다>	
	69.5%	vs 18.6%	
▶ 이주 희망 지역	<1위>	<2위>	<3위>
	그 외 타시·도	외국	대구
	<동네>	<시·군>	<경상북도>
■ (지역 소속감)	67.0%	57.4%	50.5%
■ (도정 만족도)		<만족>	<불만족>
▶ 도정정책 만족도	29.9%	vs	12.5%
▶ 행정서비스 만족도	29.7%	vs	12.5%

2017년 기준 울진군 사회조사 특성항목 결과

1. 5대 전략 사업 행정 만족도

- 울진군 5대 전략 사업 행정 만족도는 「따뜻한 복지사회와 평생건강도시 건설」 35.6%,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35.3%, 「생태문화관광도시 건설」 35.0% 순

2. 공공시설 수요

- 군민이 생각하는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공원, 유원지」 18.3%, 「체육시설 및 경기장」 13.9%의 순으로 나타남

3. 복지서비스 수요

- 군민이 생각하는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 31.7%,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서비스」 24.8%,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17.8% 순으로 나타남

4. 생태문화관광도시 건설

- 관광지로서 우리 군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볼거리 및 체험거리 보완」 31.9%, 「교통 시설」 24.8%, 「지역주민 및 종사자의 친절의식」 19.1% 순으로 나타남

5. 평생건강도시(건강증진)

-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25.1%, 「치매관리」 22.3%, 「금연/ 절주 사업」 21.4%로 나타남

6. 평생건강도시(스포츠 복지)

- 지역주민의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해 시설확충이 필요한 분야는 「실내 활동 스포츠 시설」 48.4%로 가장 높았으며, 「야외 활동 스포츠 시설」 19.7%, 「해양 레포츠 시설」 14.4% 순

7. 출산율 증대 방안

- 울진군의 출산율 증대 방안은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26.1%, 「병원 시설 확충」 21.6%, 「직장 내 근무환경 개선」 16.2%, 「지방세 및 공공요금 감면지원 확대」 15.2%, 「초중고 공교육」 11.1%, 「육아시설 확대」 7.8% 순

8. 전통시장 개선사항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상인의 친절의식 및 경영마인드 제고」 37.9%, 「교통편의 및 주차시설 확보」 26.5%, 「불거리행사 및 쉼터 확충」 19.9%, 「가격정찰제 실시」 6.5%, 「신용카드 사용 등 거래형태 개선」 5.5%, 「상품배달 등 서비스 개선」 2.8% 순

2017년 기준 경상북도 사회조사 결과

가구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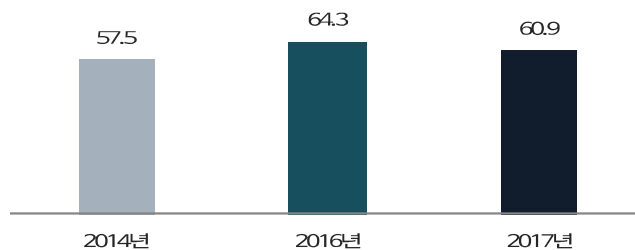
□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4년에 비해 2016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7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는 2016년 64.3%였지만, 2017년에는 60.9%로 다시 감소함
- 가족 유형별로는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7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우자 형제/자매에 대한 만족도는 49.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그림 1-1> 연도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



◆ 표 1-1> 연도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

구분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자기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	배우자의 형제·자매와의 관계	전반적인 가족관계
2014	79.5	78.2	69.2	65.8	57.7	55.7	57.5
2016	76.7	80.2	71.7	62.8	58.7	51.9	64.3
2017	72.8	77.2	67.3	56.9	56.2	49.3	60.9
남자	75.5	77.6	67.0	59.9	56.6	52.7	62.0
여자	70.0	76.8	67.5	53.7	55.9	46.2	59.8
29세 이하	81.5	78.5	73.1	66.2	70.4	61.5	71.2
30~39세	77.8	83.8	69.1	61.3	62.3	57.2	65.8
40~49세	75.4	82.2	66.7	58.6	59.3	54.1	63.2
50~59세	71.4	76.6	61.0	53.5	50.9	47.9	57.4
60~69세	70.5	75.4	56.7	48.8	48.8	46.3	55.2
70세 이상	66.1	70.1	48.8	40.9	43.2	39.5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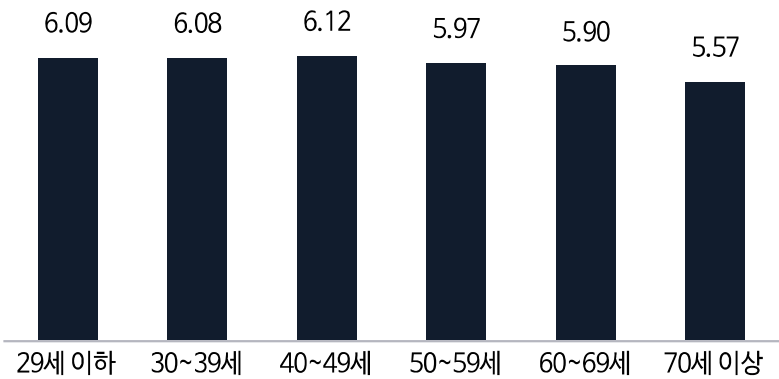
□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 보임

○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1-2 > 연령별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10점 만점)



◆ 1-2> 삶에 대한 만족도와 정서 경험

(단위 : 점, 10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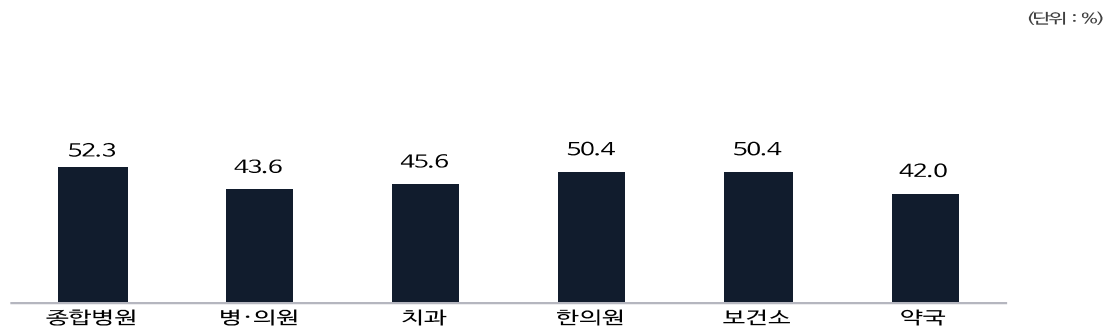
구분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반적 가치	행복 정도	걱정 정도	우울함 정도
2017	5.96	6.02	6.06	5.63	6.19
남자	5.97	6.04	6.06	5.63	6.23
여자	5.95	6.00	6.06	5.63	6.15
29세 이하	6.09	6.16	6.16	5.63	6.26
30~39세	6.08	6.21	6.20	5.56	6.21
40~49세	6.12	6.24	6.22	5.63	6.28
50~59세	5.97	6.08	6.09	5.72	6.27
60~69세	5.90	5.89	5.98	5.70	6.20
70세 이상	5.57	5.42	5.65	5.49	5.88

II 건강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는 유형별로 40~50% 사이의 만족도를 보임

- 유형별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는 종합병원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국은 42.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종합병원의 만족도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데 비해 약국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내려감

◆ 그림 2> 유형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 표 2> 연도별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

구분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보건소	약국 (한약국)
2017	52.3	43.6	45.6	50.4	50.4	42.0
남자	52.6	43.1	48.6	47.3	49.7	37.9
여자	52.0	44.0	42.1	52.4	50.9	46.9
29세 이하	43.8	42.7	50.8	53.2	56.2	47.6
30~39세	42.2	36.2	40.7	50.8	32.6	37.0
40~49세	46.9	42.7	44.0	48.5	47.6	38.4
50~59세	52.3	42.2	43.4	44.1	52.5	42.2
60~69세	57.6	46.6	47.2	50.0	49.1	51.8
70세 이상	61.1	49.5	45.5	57.5	53.6	24.5

2017년 월평균 사교육비는 미취학에서 20만원으로 가장 낮고,
고등학교까지 상급 학교로 갈수록 증가 추세임
학교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3.58점이며 전년보다 소폭 감소함

그림 3-1>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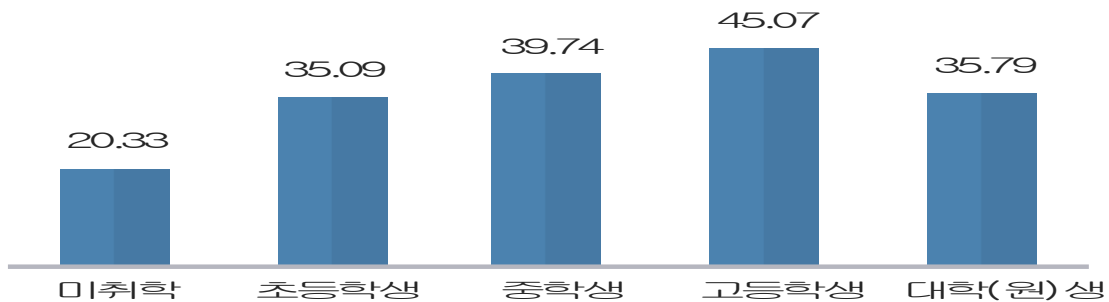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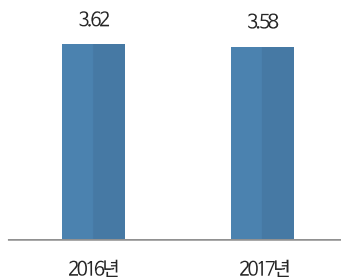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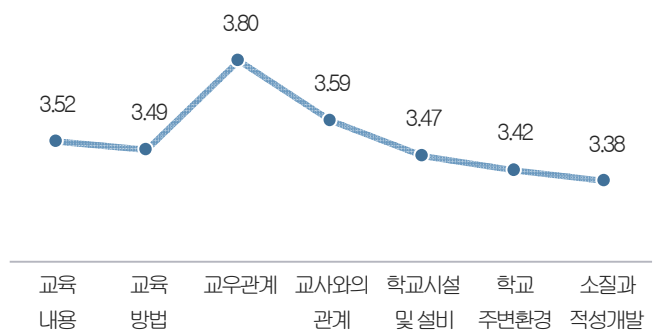
그림 3-2> 전반적 학교생활만족도

그림 3-3> 항목별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점, 5점 만점)



(단위 : 점, 5점 만점)



- 2017년 전반적 학교생활만족도는 3.58점으로 2016년 3.62점에 비해 조금 감소함
- 항목별 학교생활 만족도는 교우관계가 3.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질과 적성개발에 대한 만족도는 3.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표 3-1>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 만원)

구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
2016	14.03	35.52	39.07	37.03	—
2017	20.33	35.09	39.74	45.07	35.79
1백만원 미만	19.86	20.97	29.90	37.25	21.02
1백~2백만원 미만	15.28	23.43	32.77	34.46	35.87
2백~3백만원 미만	17.55	31.25	35.75	39.57	44.48
3백~4백만원 미만	21.93	34.65	39.17	45.09	40.60
4백~5백만원 미만	19.62	36.93	42.72	46.61	37.96
5백만원 이상	26.96	48.03	46.16	54.39	35.83

◆ 표 3-2>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점,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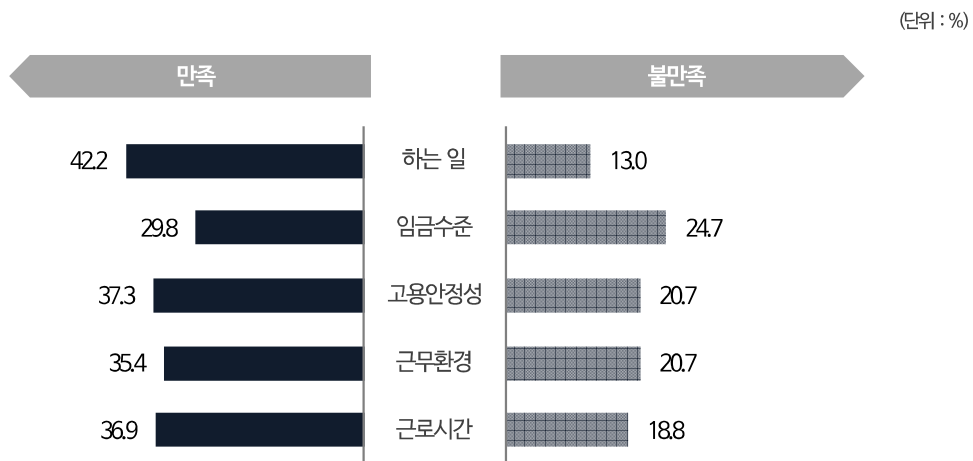
구분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우 관계	교사와 관계	학교 시설 및 설비	학교 주변 환경	소질과 적성 개발	전공
2016	3.62	3.58	3.53	3.80	3.58	3.50	3.44	—	—
2017	3.58	3.52	3.49	3.80	3.59	3.47	3.42	3.38	3.42
취업자	3.61	3.58	3.54	3.81	3.63	3.53	3.47	3.42	3.47
실업·비경제활동	3.53	3.45	3.42	3.78	3.54	3.38	3.34	3.31	3.37

IV 노동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임금수준에 대해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는 일의 경우 만족 42.2%, 불만족 13.0%로 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에 임금수준은 만족 29.8%, 불만족 24.7%로, 불만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4 > 근로여건 만족도



◆ 표 4 > 근로여건 만족도

(단위 : %)

구분	하는 일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2015	46.5	11.8	30.6	25.5	—	—
2017	42.2	13.0	29.8	24.7	37.3	20.7
남자	41.5	13.6	31.0	24.3	38.1	20.8
여자	43.4	12.1	27.7	25.2	35.8	20.7
29세 이하	40.8	13.1	27.8	26.2	34.7	21.2
30~39세	42.1	12.0	29.1	25.4	38.1	18.5
40~49세	42.7	11.6	30.3	22.6	39.5	18.3
50~59세	43.1	14.4	32.0	24.1	38.4	22.0
60~69세	40.6	17.2	27.4	27.7	32.0	29.2
70세 이상	43.9	14.6	30.1	27.0	26.6	32.8

소득과 소비만족도에서는 보통 응답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만족보다 불만족 응답이 약간 높음

그림 5-1 > 소득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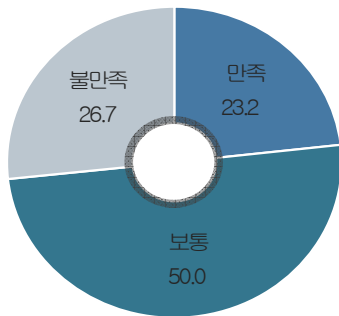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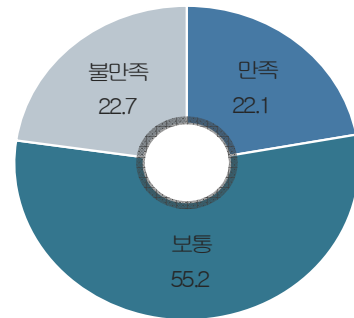


그림 5-2 > 소비 만족도

(단위 : %)



- 소득 만족도는 만족 23.2%, 보통 50.0%, 불만족 26.7%로 나타났으며, 소비 만족도는 만족 22.1%, 보통 55.2%, 불만족 22.7%로 나타남
- 소득과 소비 모두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으며, 만족에 비해 불만족이 비율이 더 높음

◆ 표 5 > 소득/소비 만족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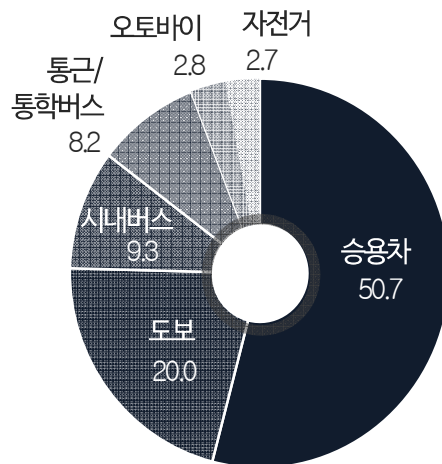
구분	소득만족도			소비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2015	24.2	45.0	30.8	23.0	48.5	28.4
2017	23.2	50.0	26.7	22.1	55.2	22.7
남자	24.0	50.5	25.5	23.0	55.6	21.4
여자	22.1	49.3	28.6	21.2	54.7	24.1
29세 이하	24.1	52.0	24.0	21.9	55.5	22.6
30~39세	25.4	50.8	23.9	23.7	53.7	22.7
40~49세	26.0	49.7	24.2	26.0	53.5	20.5
50~59세	24.2	50.2	25.6	22.5	55.1	22.4
60~69세	22.7	49.5	27.9	21.3	57.0	21.7
70세 이상	17.1	48.8	34.1	16.3	56.6	27.1

통근통학자의 절반 이상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근통학 수단의 경우 승용차 50.7%, 도보 20.0% 시내버스 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만족도는 시내버스와 택시가 3.24점, 시외(고속)버스가 3.19점, 마을버스가 3.06점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6-1 > 통근통학 수단

(단위 : %)



◆ 그림 6-2 > 대중교통 만족도

(단위 : 점,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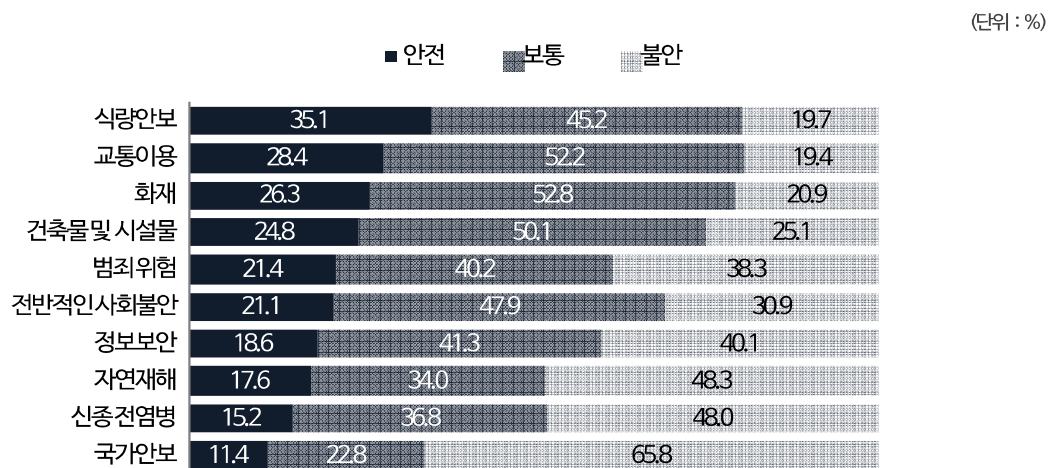


VII 안전

사회 안전 분야별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식량안보 35.1%로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반면 국가안보는 불안 65.8%로 가장 불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유형별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식량안보가 안전 35.1%, 불안전 19.7%로 가장 안전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보임
- 반면 국가안보는 안전 11.4%, 불안전 65.8%로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은 청송군이 41.4%로 가장 높고, 영덕군이 11.7%로 가장 낮음

◆ 그림 7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표 7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

구분	국가안보		자연재해		정보보안		범죄위험		식량안보		전반적인 사회 안전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2016	18.1	50.6	21.8	34.9	13.2	48.0	12.6	54.1	38.6	17.2	—	—
2017	11.4	65.8	17.6	48.3	18.6	40.1	21.4	38.3	35.1	19.7	21.1	30.9
남자	12.0	64.3	18.6	46.4	18.7	40.6	22.3	35.8	35.7	19.0	21.7	29.5
여자	10.8	67.4	16.6	50.3	18.5	39.6	20.5	40.9	34.5	20.3	20.6	32.4
29세 이하	12.0	62.2	17.7	45.5	17.7	43.1	18.8	40.1	33.1	18.4	19.9	29.7
30~39세	10.1	67.0	14.9	51.7	13.6	47.0	16.6	45.0	30.0	23.1	17.0	38.1
40~49세	12.7	63.5	17.9	47.6	18.0	42.2	20.6	39.5	33.2	21.4	20.3	32.4
50~59세	11.5	67.3	17.1	49.3	18.9	40.1	22.0	37.2	34.9	19.6	21.2	30.1
60~69세	10.3	69.9	18.1	50.4	20.5	36.6	24.1	36.1	40.0	18.8	23.1	30.0
70세 이상	11.4	66.3	20.0	46.4	22.9	30.5	27.1	32.0	40.3	17.1	25.7	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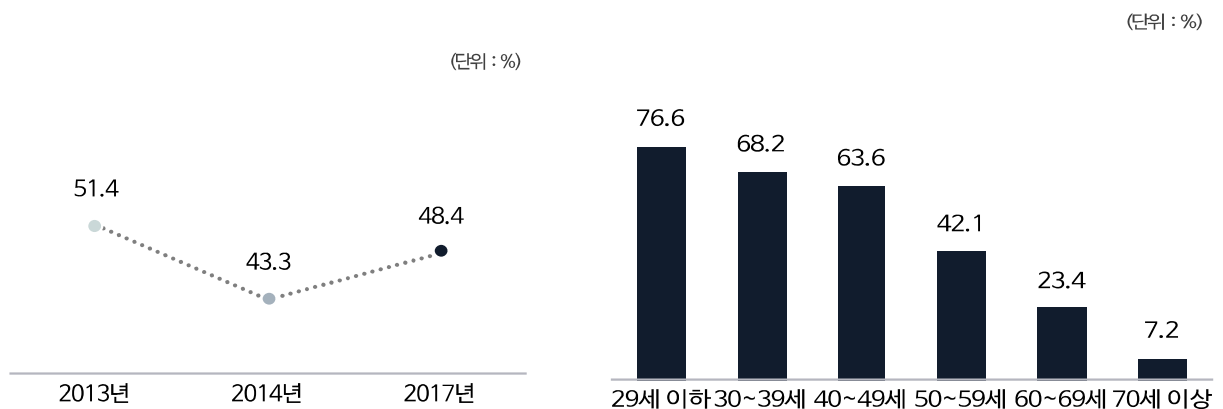
VIII 여가와 문화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48.4%로 인구의 절반은 문화예술행사를 한번 이상 관람한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3년 51.4%에서 2014년 43.3%로 감소하였지만, 2017년 48.4%로 다시 증가함
- 연령별, 가구소득별, 학력별 비교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8-1 > 연도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그림 8-2 > 연령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표 8-1> 문화예술관람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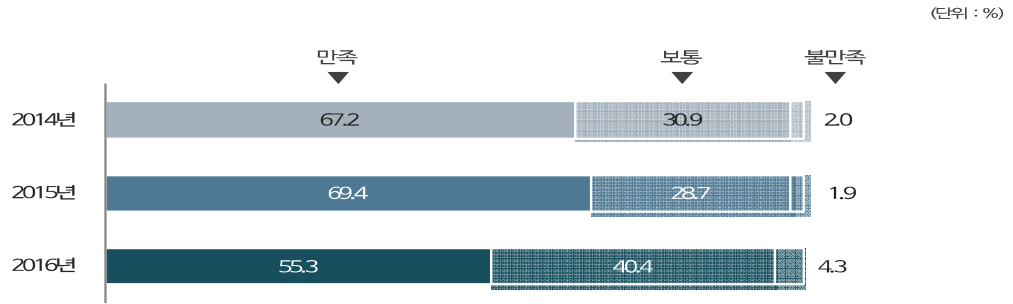
구분	전체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2013	51.4	18.8	18.3	1.3	76.9	32.0	17.6	6.8
2014	43.3	8.3	—	—	38.2	8.9	—	6.7
2017	48.4	17.2	15.2	2.0	90.3	19.1	12.6	13.8
남자	49.0	14.9	12.7	1.7	89.6	17.9	10.5	18.7
여자	47.7	19.6	17.7	2.2	91.0	20.3	14.8	8.7
29세 이하	76.6	13.0	12.1	1.5	95.3	11.8	9.8	12.4
30~39세	68.2	15.1	18.6	2.2	90.4	23.6	14.2	16.1
40~49세	63.6	18.2	15.2	2.0	93.1	23.0	14.8	14.4
50~59세	42.1	21.8	15.3	2.3	87.5	18.2	12.9	14.6
60~69세	23.4	25.3	17.8	2.2	75.6	25.7	13.4	12.0
70세 이상	7.2	24.3	16.1	1.9	57.2	25.7	9.6	6.5

□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및 시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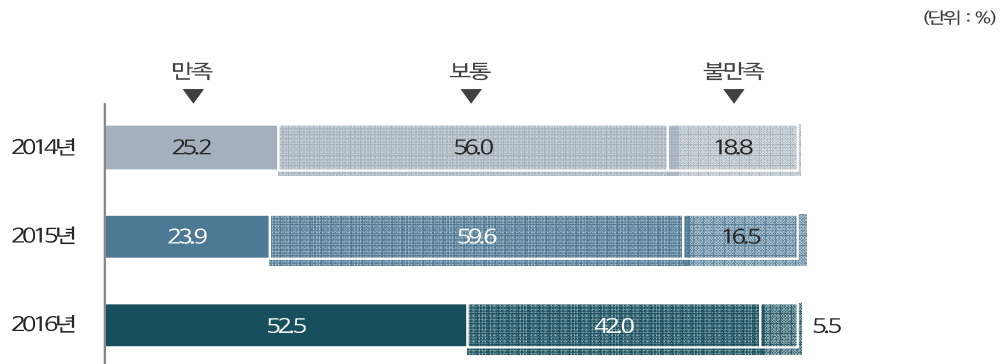
2017년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했지만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함

- 문화예술행사 만족도는 2017년 만족 55.3%로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지만,
문화예술행사 시설관련 만족도는 만족 52.5%로 이전보다 많이 증가함

◆ 그림 8-3 > 연도별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 그림 8-4 > 연도별 문화예술행사 시설 만족도



◆ 표 8-2>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및 시설만족도

(단위 : %)

구분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시설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2016	69.4	28.7	1.9	23.9	59.6	16.5
2017	55.3	40.4	4.3	52.5	42.0	5.5
남자	54.1	41.6	4.3	51.5	43.1	5.4
여자	56.5	39.2	4.3	53.5	40.9	5.6
29세 이하	55.8	39.4	4.8	52.5	41.6	5.8
30~39세	51.1	43.8	5.1	48.6	45.1	6.3
40~49세	53.0	42.9	4.1	50.0	44.2	5.8
50~59세	56.8	39.4	3.8	54.1	41.1	4.8
60~69세	63.2	34.3	2.6	61.9	34.7	3.4
70세 이상	73.0	25.1	1.9	70.6	26.9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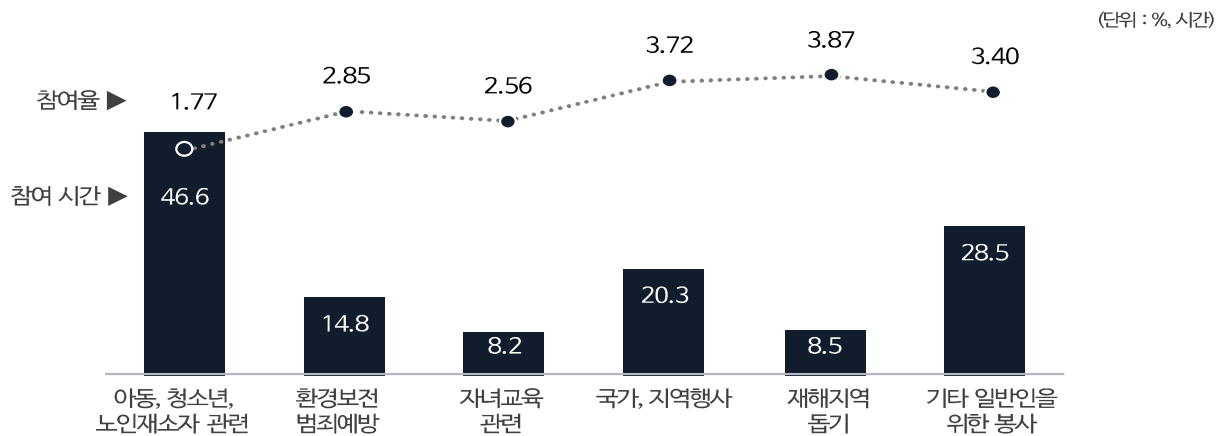
IX 사회통합

□ 자원봉사/후원(기부) 참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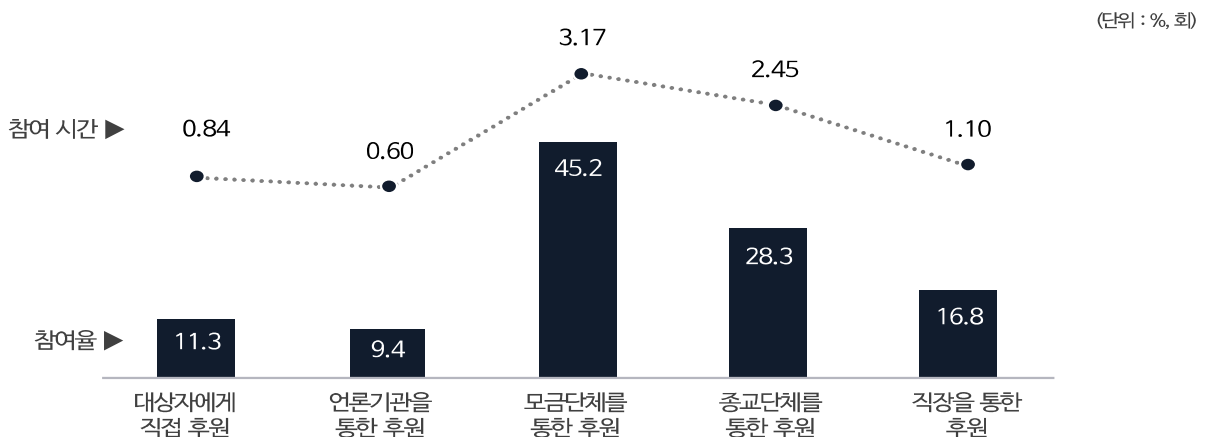
자원봉사 참여율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재소자 관련 봉사가 46.6%로 가장 높고
후원(기부) 참여율은 직장을 통한 후원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원봉사 참여율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재소자 관련 봉사가 46.6%로 가장 높았으며, 참여시간은 재해지역 돕기가 3.87시간으로 가장 높았음
- 후원(기부) 참여율은 직장을 통한 후원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참여 횟수 또한 3.17회로 직장을 통한 후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림 9-1 > 유형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시간



◆ 그림 9-2 > 유형별 후원(기부) 참여율 및 참여횟수



◆ 표 9-1>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 시간)

구분	자 원 봉 사 활 동 참 여 율	아동 청소년 노인 재소자관련		환경보전 범죄예방		자녀교육 관련		국가 지역행사		재해지역 돕기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참 여 율	시 간	참 여 율	시 간	참 여 율	시 간	참 여 율	시 간	참 여 율	시 간	참 여 율	시 간
2015	106	421	41	132	40	63	32	237	38	100	39	254	—
2017	116	466	177	148	285	82	256	203	372	85	387	285	37
남자	123	418	382	193	295	57	259	225	365	110	412	294	340
여자	109	521	378	97	262	110	254	179	384	56	330	275	342
29세 이하	185	640	418	125	305	18	310	103	486	41	480	237	337
30~39세	83	367	367	115	295	225	257	156	360	61	397	281	353
40~49세	138	410	368	146	266	194	257	204	359	99	384	256	384
50~59세	141	410	341	191	278	42	191	296	338	122	346	334	346
60~69세	95	317	342	162	286	22	330	310	365	119	382	374	323
70세 이상	22	417	290	128	284	19	330	264	341	93	397	268	315

◆ 표 9-2> 후원(기부) 참여율

(단위 :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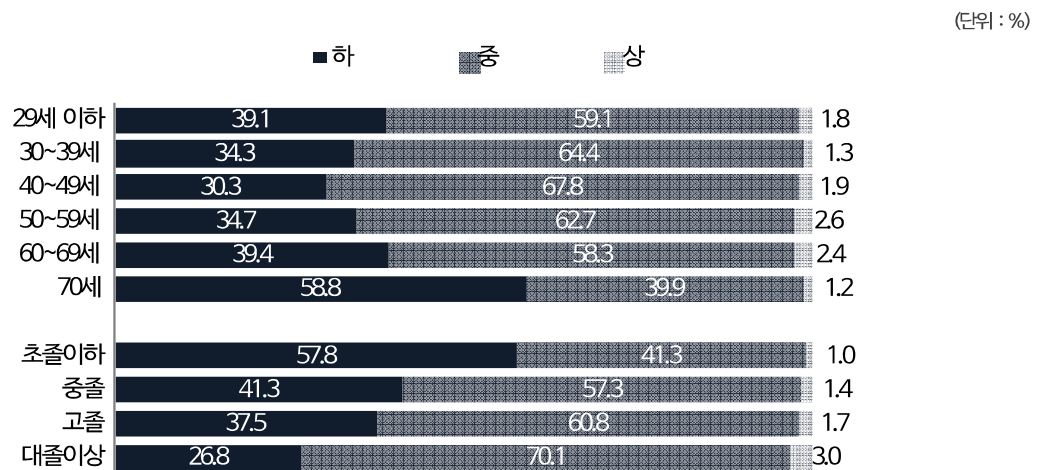
구분	후원 (기부) 활동 참여율	대상자에게 직접후원		언론기관을 통한후원		모금단체를 통한후원		종교단체를 통한후원		직장을 통한 후원	
		참여율	연간 후원 횟수	참여율	연간 후원 횟수	참여 율	연간 후원 횟수	참여 율	연간 후원 횟수	참여 율	연간 후원 횟수
2015	11.3	14.2	4.84	7.6	2.20	38.3	5.71	32.9	6.47	13.6	4.34
2017	12.8	11.3	0.84	9.4	0.60	45.2	3.17	28.3	2.45	16.8	1.10
남자	15.2	11.5	0.89	8.9	0.58	44.7	2.98	26.3	2.33	21.1	1.42
여자	10.3	11.0	0.77	10.1	0.64	45.9	3.44	31.2	2.64	10.5	0.62
29세 이하	6.6	8.0	0.63	5.7	0.33	53.9	4.24	12.2	0.98	16.4	1.29
30~39세	15.2	8.5	0.68	11.3	0.69	45.7	3.77	20.4	1.73	25.5	1.68
40~49세	20.3	11.8	0.84	8.5	0.60	47.7	3.85	24.7	2.23	17.3	1.13
50~59세	18.1	14.1	1.17	9.8	0.62	41.9	2.74	34.1	2.90	19.0	1.23
60~69세	11.8	11.8	0.62	10.3	0.64	41.0	1.75	40.9	3.57	5.7	0.27
70세 이상	3.9	8.4	0.65	10.8	0.65	40.0	1.10	42.8	3.76	1.9	0.05

□ 주관적 귀속계층

20-40대 구간은 주관적 귀속계층 '하' 응답자가 점차 감소하는 반면,
40대 이후에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주관적 귀속계층 의식에서 자신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40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70세 이상 구간에서는 '하'층 응답자가 58.8%로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함
-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자신이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그림 9-3 > 연령별/교육수준별 주관적 귀속계층



◆ 표 9-3 > 소득/소비 만족도

(단위 : %)

구분	2017			2015			2013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전체	1.9	59.1	39.0	1.7	52.4	45.9	2.4	55.1	42.6
29세 이하	1.8	59.1	39.1	1.3	60.8	37.9	1.8	63.3	34.9
30~39세	1.3	64.4	34.3	1.3	64.3	34.4	1.4	65.1	33.5
40~49세	1.9	67.8	30.3	2.1	64.3	33.6	2.8	63.1	34.1
50~59세	2.6	62.7	34.7	2.6	60.1	37.4	3.0	59.8	37.1
*60~69세	2.4	58.3	39.4	1.5	41.7	56.8	2.4	41.7	55.9
70세 이상	1.2	39.9	58.8	—	—	—	—	—	—
초졸이하	1.0	41.3	57.8	1.0	36.7	62.3	1.9	36.7	61.4
중졸	1.4	57.3	41.3	1.6	52.1	46.3	2.0	53.6	44.4
고졸	1.7	60.8	37.5	1.8	60.1	38.2	2.2	59.8	37.9
대졸이상	3.0	70.1	26.8	3.0	70.2	26.8	3.3	72.6	24.0

*2013년, 2015년은 6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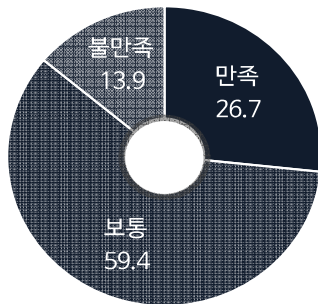
□ 도정에 대한 만족도

도정 정책 만족도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남

- 도정 정책 만족도와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는 각각 만족 26.7%, 27.0% 보통 59.4%, 58.8% 불만족 13.9%, 14.1%로 불만족보다는 만족의 비율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경산시가 41.5%로 가장 높고, 포항시가 16.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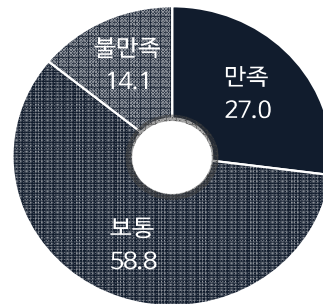
◆ 그림 9-4 > 도정 정책 만족도

(단위 : %)



◆ 그림 9-5 > 행정서비스 만족도

(단위 : %)



◆ 표 9-4> 도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분	도정정책 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2017	26.7	59.4	13.9	27.0	58.8	14.1
남자	27.2	58.1	14.8	27.0	57.9	15.2
여자	26.2	60.7	13.1	27.1	59.8	13.1
29세 이하	17.5	67.7	14.7	18.1	66.7	15.2
30~39세	20.3	60.7	18.9	21.1	59.6	19.4
40~49세	25.2	59.1	15.7	25.2	58.8	16.0
50~59세	29.3	57.1	13.6	29.9	56.1	14.0
60~69세	34.3	54.5	11.2	34.6	54.6	10.7
70세 이상	35.7	55.0	9.3	35.6	55.4	9.0